

프랑스 대선후보의 경제·원자력 정책

(2011. 2. 3)

I. 프랑스 2012년 대선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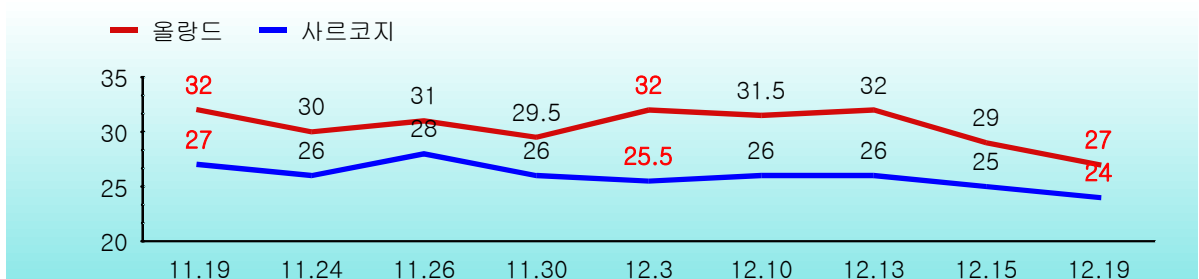
① 기본 정보

임 기	○ 5년 / 1회 연임 가능
투표 일정	○ 4.22(일) 1차 투표 ○ 5. 6(일) 2차 투표 * 1차 투표에서 과반득표 실패 시 1,2 순위자 2차 투표
유 권 자	○ 만 18세 이상의 프랑스 국적 소유자 ○ 선거인 명부 등록자 (약 4,400만 명 예상)
역대 대통령	○ 자크 시라크(우파) : 1995-2007(12년) ○ 프랑수아 미테랑(좌파) : 1981-1995(14년) ○ 지스카르 데스탱(우파) : 1974-1981(7년)

② 정당별 대선후보

구 분	니콜라스 사르코지	프랑수아 올랑드	에바 졸리	마린 르펜	프랑수아 바이루
소속정당	대중운동연합	사회당	유럽녹색당	국민전선	민주운동당
정치성향	우파	좌파	좌파	극우파	중도파
나 이	56세	57세	69세	44세	61세

③ 유력 대선후보 지지율 추이 (2011년말)



II. 대선후보의 경제·원자력 정책 공약

① 니콜라스 사르코지

○ 약 력

- 프랑스 현 대통령, 우파 대중운동연합 소속
- 1955년 1월 28일 프랑스 파리 출생
- 파리 10대학 법학과 졸업, 변호사 출신
- * 2012년 3월 중순경 대선 출마선언 예상



○ 대선 공약

▶ 경제정책 (2012년 대통령 신년인사 연설문)

“경제위기 탈출, 新성장 모델 구축을 위해 3대 목표 달성”

- 사회보장세 축소 및 부가가치세 인상
- 금융거래세 도입 (금융기관의 무절제에 대응)
- 고용창출 (실업자 단순보상이 아닌, 실업자 교육강화, 산업 부흥)

▶ 원자력 정책 (대선 출마선언 후 정책공약 발표 예정)

-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자력 산업 육성

- 현재 원자력 발전비중(약 75%) 유지
- 원전 건설 적극 추진

* 원전산업이 65년 이상 국가경제력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는 입장

- 좌파 요구 탈원전에 대한 입장

- 노후 원전(피센아임 원전) 즉각 폐쇄 반대
- 대안 없는 원전 폐쇄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(전기요금 50% 인상, 40만명 고용박탈) 반대

② 프랑수아 올랑드

○ 약 력

- 좌파 사회당 소속
- 1954년 8월 12일 프랑스 루앙 출생
- 파리정치대/국립행정학교 졸업, 판사/변호사 출신
- * 2011. 10.16 대선후보로 선출



○ 대선 공약

▶ 경제정책

- 조세 개혁

- 확대사회보호세와 소득세 통합, 자녀수 비례 세금감면혜택제 폐지/개선
- 청년 실업률 감소 (이민자/우범지역 출신 소외계층 고용확대 등)
- 최저임금 상향 개혁 (최저임금 정산법 개정)

▶ 원자력 정책

- 2025년까지 원자력 발전비중 하향 조정 (75% → 50%)
 - 운영중인 원전 58기중 24기를 2025년까지 점차적으로 폐쇄
 - 노후 원전(피센아임) 즉각 폐쇄
- 원전 건설에 대한 입장
 - 플라망빌 3호기를 제외한 자국내 추가 원전 건설 반대
- 대선승리를 위해 녹색당과 원자력정책 합의(2011.11.15)
 - 원자력 발전비중 하향 조정 (75% → 50%)
 - MOX 연료 제조사업에서 사용후 연료 처리사업으로 전환
 - * 원자력 발전비중 하향조정에 따른 MOX 연료 제조량 감소 대비
 - 라아그 재처리시설과 마르쿨내 MOX 공장 인력 고용보장

③ 에바 졸리

○ 약 력

- 좌파 유럽녹색당 소속
- 1943년 12월 5일 노르웨이 오슬로 출생
- 프랑스-노르웨이 이중국적자, 예심판사 출신
 - * 2011. 7.12 대선출마 확정



○ 대선 공약

▶ 경제정책

-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

-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의 비중을 30% 수준으로 상향
- 신재생 에너지 분야 약 14만명의 신규고용 창출
- 유대교 및 회교도 공휴일 지정

▶ 원자력 정책

- 강력한 탈원전 주장
- 플라망빌 3호기 건설 즉각 중단
- 노후 원전(피센아임) 즉각 폐쇄

4 마린 르펜

○ 약 력

- 극우파 국민전선 소속
- 1968년 8월 5일 프랑스 뇌이 쉬르 센 출생
- 파리 2대학 졸업, 변호사 출신
- * 2011. 5.16 대선출마 확정



○ 대선 공약

▶ 경제정책

- 유로존 탈퇴, 프랑화로 회귀, EU 조약 재협상
- 이민자 규제, 국경통제 강화, 수입쿼터제
- 빈곤층 (소득이 최저임금의 1.4배 이하) 월소득 200유로 인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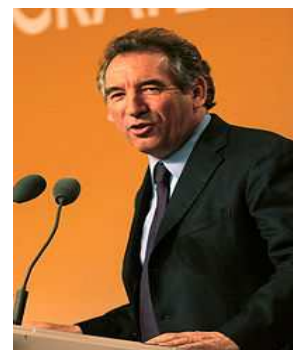
▶ 원자력 정책

- 원자력을 지지하나 장기적으로 탈원전 입장
- 현재로서 원자력이 필요불가결한 에너지원
- 당분간 원자력 안전, 폐기물 재처리 분야에 투자가 필요
- 향후 원자력발전 찬반여부 관련 국민투표 실시

5 프랑수와 바이루

○ 약 력

- 중도파 민주운동당 소속
- 1951년 5월 25일 프랑스 피레네-자틀랑티 출생
- 보르도 3대학 졸업, 교수 출신
- * 2011. 12.7 대선출마 확정



○ 대선 공약

▶ 경제정책

- 독일을 성장모델로 삼고 재정적자 위기 극복
-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, 주 35시간 근무제 완화

▶ 원자력 정책

- 원자력 산업 지지
- 노후원전(피센아임) 즉각 폐쇄에 반대

III. 대선 관련 현지 동향

- Le Monde지가 실시한 '12. 1월 중순 여론조사에서 올랑드 후보의 2차 선거 예상득표율이 약 60%(사르코지 약 40%)를 기록, 역대 대선후보 중 가장 높음

* 과거 좌파 미테랑 대통령이 '88.1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7%를 기록, 4개월 후 대선에서 우파 시락 후보를 누르고 54% 득표율로 재임 성공

- 사르코지 대통령이 작년말 대선 100여일을 앞두고 출마선언을 하지 않은 이유는 전략상 현직 대통령으로서 무게를 유지하고 국가예산으로 선거활동을 하며, 정적들에게 맞추기 어려운 표적이 되는데 있음.

* 출마선언 지연 모델은 미테랑 대통령으로 그는 재임을 위해 대선 약 한달 전 출마선언을 했으며 사르코지는 3.6~16일중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

- 사르코지 대통령은 재임 중 긴축재정안, 미흡한 세재개혁,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인기하락세를 이어왔으며 최근 파키스탄과 무기거래를 둘러싼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 등 본인과 측근들의 잇따른 추문으로 지지율이 더욱 낮아짐

- 사르코지 대통령이 금년초 기자들과 만나 비공식적으로 “금번 대선 패배시 정계 은퇴해 전혀 다른 생활을 영위하거나 변호사를 하겠다”고 발언

* Le Monde지는 “사르코지, 대선 실패를 두려워하다”라는 부정적 기사를 게재하였으나, 대통령으로서 겸허한 발언을 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음.

- 좌파 올랑드 후보는 평소 우유부단하고 고리타분한 모습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여론의 反 사르코지 감정, 좌파내 경쟁상대 부재, “정상적인 대통령” 을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높은 지지율을 획득
- 올랑드 후보는 최근 첫 대중연설에서 보수적인 집안에서 성장했지만 이념적으로 좌파를 선택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등 보다 좌파적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아울러 친근하고 정직하며 국민과 가까운 이미지 위에 “대통령으로서의 카리스마”를 보여주는데 더욱 매진하는 중임

【파리사무소】